

電氣·電子輸出 본격回復

電子製品輸出이 하반기들어 계속 好調를 지속하고 있다.

關稅廳에 따르면 電氣部門을 포함한 電子製品의 수출이 상반기중 내내 한자리 수의 증가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하반기들어 두자리수대로 回復되기 시작한 후 9월중에도 수출이 18억4천7백1만4천달러에 달해 3개월 연속 10%대 이상의 높은 增加率을 시현했다.

이로써 올들어 9월말까지의 電子製品輸出은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8.5%가 增加한 1백58억2천4백77만2천달러에 달했다.

部門別로 보면 産業用 電子가 컴퓨터 주변기기등의 好調로 9월중 3억7천4백17만5천달러를 기록, 월별대비 14.8%가 增加하면서 累計로는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7.6%가 增加한 29억4천2백79만7천달러에 달함으로써 전체 電子製品輸出중 18.5%의 比重을 차지했다.

주력제품인 半導體가 미국시장에서 高率의 예비덤핑판정을 받음으로써 수출기반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는 電子部品은 9월중 8억2천7백39만달러어치가 수출돼 輸出增加率이 9.7%로鈍化됐으나 상반기중의 輸出好調에 힘입어 9

월말累計는 78억1천5백82만9천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.3%가 增加, 아직 두자리수의 增加率을 유지하면서 電子製品중 49.3%의 수출비중을 점하고 있다.

家電部門은 9월중 5억6천9백43만2천달러(월별대비 13.0% 증가)가 수출, 역시 하반기에 접어들어 생산기동안의 不盡을 씻고 上昇勢를 타고 있으나 3·4분기 현재 44억3천2백14만2천달러로 前年同期對比 1.6%의 增加에 그치면서 전체 電子製品중 수출비중은 28.0%에 머물렀다.

重電機器와 電線部門은 9월중 4천6백53만5천달러와 2천9백48만3천달러에 달해 각각 19.7%, 0.3%의 增加率을 기록했다.

한편 3·4분기까지의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EC가 각각 49억4천4백29만8천달러(전년대비 8.6% 증가)와 22억9천5백25만3천달러(전년대비 10.0% 감소)를 기록, 여전히 1,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싱가포르·홍콩, 말레이시아·멕시코·아르헨티나등 아시아와 중남미권 국가들이 두자리수의 增加率을 보이며 상위권에 랭크, 輸出市場多邊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